



남부고시 나래국어 이유진 교수

2017 지방직 7급 국어 해설

現) 남부고시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KG패스원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메가스터디, 이투스청솔, 강남종로

前) 동대부속고, 홍익대학교, 응지세무대

집필) 이유진 나래국어 알기쉬운문법·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우월한독해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저절로어휘한자·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독해알고리즘·헤르메스
이유진 문법의 단권화, 고시동네
이유진 나래국어 기출 300제 박문각
메가북스 EBS 분석노트
디딤돌 국어의 모든 것(단권화) 시리즈
EBS 변형 시리즈 (비문학)

검토) EBS 수능특강 사전 검토, 자이스토리 검토

기타) 법률저널 독해방법론, 학습심리 칼럼, '국문학과 국사의 입맞춤' 연재



2017 지방직 7급

문 1.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너 말 한번 잘 했다.
- ② 값이 얼마지 한번 물어보세요.
- ③ 우리는 겨우 일주일에 한번밖에 못 만난다.
- ④ 한번 잊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

★ 정답: ③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번'이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과 같이 띄어 쓴다. '한번'을 '두 번', '세 번'으로 바꾸어 뜻이 통하면 '한 번'으로 띄어 쓰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으로 붙여 쓴다. '우리는 겨우 일주일에 두 번밖에 못 만난다.'라고 바꾸어도 말이 통하므로 '한번'은 '한 번'으로 띄어 쓴다.

참고) 의미 특수화된 합성어(알기 쉬운 문법 p. 170)

구	합성어(의미 특수화)
작은V집: 규모가 작은 집	작은집: 작은아버지의 집
큰V집: 커다란 집	큰집: 집안의 맏이가 사는 집
큰V소리: 커다란 소리	큰소리: 야단치거나 과장하는 말
큰V코V다치다: 코 부상	큰코다치다: 봉변·무안당하다.
큰V발: 한 걸음	한발: 행동이 약간 간격이 있게
한V걸음: 한 번의 보폭	한걸음: 쉬지 않고 내쳐 걷는 걸음
한V잔: 하나의 분량인 잔	한잔: 간단하게 마시는 차나 술
한V번: 하나의 횟수	한번: 시험 삼아 시도함, 지난 어느 때나 기회
한V판: 승부를 겨룬 수효	한판: 겨루는 것을 시도함
우는V소리: 실제 우는 소리	우는소리: 엄살을 부리는 소리
우리V말: 우리들의 말	우리말: 한국어
허물V없는: 잘못이 없는	허물없는: 매우 친한
다V되었다: 완성	다되었다: 완전히 망치다
밥맛V없다: 입맛이 없다	밥맛없다: 아니꼽다

★ 오답 해설:

- ①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 '한번'은 붙여 쓴다. '너 말 두 번 잘 했다.'라고 바꾸면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한번'을 붙여 쓴다.
- ②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부사 '한번'은 붙여 쓴다. '값이 얼마지 두 번 물어보세요.'라고 바꾸면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한번'을 붙여 쓴다.
- ④ '한번 잊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라는 문장에서 '한번'을 '두 번'으로 바꾸면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한번'을 붙여 쓴다.

2017 지방직 7급

문 2. ㉠과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음주의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단어의 발음이 여러 가지로 실현되는 경우 소리대로 적는다면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 어법이란 언어 조직의 법칙, 또는 언어 운용의 법칙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는 것이다.

- ① ㉠: '살고기'로 적지 않고 '살코기'로 적음
- ② ㉠: '론의(論議)'로 적지 않고 '논의'로 적음
- ③ ㉡: '그피'로 적지 않고 '급히'로 적음
- ④ ㉡: '달달이'로 적지 않고 '다달이'로 적음

★ 정답: ④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28항에 따라 '달-달-이'는 '다달이'라 적는다. 따라서 '다달이'는 표음주의를 따라 소리대로 적은 것이므로 ㉠의 예이다.

★ 오답 해설:

- ① 'ㅎ' 중성 체언인 '살ㅎ'과 '고기'의 합성어인 '살코기'는 [히]음이 첨가되어 발음되는 단어이다. 소리 나는 대로 뒤 단어의 첫소리를 거센소리로 적은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 ②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12항에 따라 '論議'는 '논의'로 적지 않고 '논의'로 적는다. 단어의 첫머리에서 'ㄹ'을 'ㄴ'으로 발음하려는 표음주의를 따른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 ③ '급히'는 [그피]로 발음하나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25항에 따라 '급히'로 적는다. 이는 어법에 맞도록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은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2017 지방직 7급

문 3. 밑줄 친 어휘의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달걀 껍데기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② 식당에서 깎두기를 더 주문했다.
- ③ 손님은 종업원에게 당장 주인을 불러오라고 닥달하였다.
- ④ 작은 문 옆에 차가 드나들 수 있을 만큼 뽕다란 길이 났다.

★ 정답: ㉠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표준어 규정

'먹거리'란 말은 한동안 표준어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동사의 어간이 명사와 바로 결합하는 것은 문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는 온갖 것'이란 의미로 '먹을거리'와 복수 표준어로 사전 등재되었다.

참고) 2011년 새로 인정한 복수 표준어(알기 쉬운 문법 p. 236)

간절이다/ 간지럽하다	남사스럽다/ 남우세스럽다	등물/목물	멘날/만날
못자리/뚝자리	복숭아뼈/복사뼈	세간살이/세간	쌈싸름하다/ 쌈싸래하다
토란대/고운대	허접스레기/ 허섭스레기	흙담/토담	-길래/-기에
개발새발/괴발개발	나래/날개	내용/냄새	눈꼬리/눈초리
떨구다/떨어뜨리다	뜨락/뜰	먹거리/먹을거리	메꾸다/메우다
손주/손자	어리숙하다/ 어수룩하다	연신/연방	황하니/황허케
걸리적거리다/ 거지적거리다	끄적거리다/ 끼적거리다	두리몽실하다/ 두루몽술하다	맨송맨송/맹송맹송/ 맨송맨송
바동바동/바동바동	새조롭하다/ 새치름하다	아웅다웅/아웅다웅	야멸차다/야멸치다
오손도손/오손도손	찌뿌둥하다/ 찌뿌듯하다	추근거리다/ 치근거리다	-
자장면/짜장면	태견/택견	품세/품새	-

★ 오답 해설:

- ② ‘깍둑거리다’의 어근 ‘깍둑-’에 접사 ‘-이’가 결합된 파생어나 어근의 본뜻이 인식되지 않으므로 그 형태를 밝히어 적지 않고 ‘깍두기’라 적는다. 흔히 ‘깍다’에서 온 말로 착각하여 ‘깍두기’로 적을 수가 있으나 ‘깍두기’는 어원상 ‘깍다’와 연관이 없다.
- ③ ‘남을 단단히 옥박질러서 혼을 내다.’라는 의미의 동사는 ‘뒹달하다’라 적는다.
- ④ ‘널따랗다’의 기본형인 ‘넙다’는 [넙따]로 발음한다.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21항의 예외 조항에 따라 ‘넙다’의 어간 ‘넙-’과 접미사 ‘-다랗다’가 결합된 파생어는 ‘넙다랗다’가 아닌 ‘널따랗다’로 적는다.

2017 지방직 7급

문 4. 다음은 일부 지역과 계층에서 ‘애’와 ‘에’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애’와 ‘에’를 구별하는 ()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 ① 혀의 앞뒤 관련 자질
② 혀의 높낮이 관련 자질
③ 소리의 강약 관련 자질
④ 소리의 장단 관련 자질

★ 정답: ② - 이론 문법 - 음운론 - 음운의 체계

‘애’와 ‘에’는 모두 혀의 위치에 따라서는 ‘전설모음’,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는 ‘평순 모음’이다. 그러나 ‘에’는 고모음보다 입을 더 열어서 혀의 위치를 중간으로 하여 발음하는 중모음이고, ‘애’는 입을 크게 열어서 혀의 위치를 가장 낮게 하여 발음하는 저모음이다. 따라서 두 모음은 혀의 높낮이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참고) 현대 국어의 단모음 체계(알기 쉬운 문법 p. 35)

혀의 위치에 따라 입술의 모양에 따라 혀의 높이에 따라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ㅁ	ㅡ	ㅜ
중모음	ㅔ	ㅟ	ㅓ	ㅛ
저모음	ㅐ		ㅑ	

2017 지방직 7급

문 5. 어법에 맞는 문장은?

- ① 그 어른은 웬간해서는 내색을 안 하시는 분이다.
② 일이 업히고설켜서 풀기가 어렵다.
③ 불필요한 기능은 빠지고 필요한 기능만 살렸다.
④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 개통될지 알 수 없다.

★ 정답: ②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이론 문법 - 동사론 - 올바른 표현

‘업히고설키다’가 옳은 표기이다. ‘업히다’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업히다(또는 설키다)’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용언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떨어진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21항에 따라 ‘업히고설키다’로 적는다.

★ 오답 해설:

- ① ‘웬간하다’라는 말은 표준어가 아니다. 발음이 비슷한 말로는 ‘웬만하다’와 ‘엔간하다’가 있는데 이 중 ‘웬만하다’의 ‘허용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라는 둘째 의미가 문맥에 가장 적합하다.
- 엔간하다: 대중으로 보아 정도가 표준에 꽤 가깝다.
- 웬만하다: 「1」 정도나 형편이 표준에 가깝거나 그보다 약간 낮다.
「2」 허용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 ③ ‘불필요한 기능은 빠지다’와 ‘필요한 기능만 살렸다’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그런데 주어의 보조사를 주격 조사로 바꾸었을 때 앞 문장은 ‘기능이 빠지다’로 주어와 서술어 관계인 반면, 뒤의 문장은 ‘기능을 살렸다’로 목적어와 서술어 관계이다. 이어진문장에서는 호응이 서로 맞아야 하므로 ‘불필요한 기능은 빠고 필요한 기능만 살렸다’ 정도로 고치는 것이 알맞다.
- ④ ‘공사가’는 ‘시작되고’의 주어이지, ‘개통될지’의 주어는 아니다. ‘알 수 없다’에 호응하는 전체 주어(㉠ 우리는)가 빠져 있지만, 문맥상 지장이 없어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통될지’에 해당하는 주어(㉡ 도로가, 철도가 등)를 생략할 경우에는 문맥상 결함이 생긴다.

2017 지방직 7급

문 6. 밑줄 친 말에서 가리키는 사람이 다른 것은?

휘령전으로 오시고 ㉠소조(小朝)를 부르신다 하니, 이 상할손 어이 궤(避)차.’는 말도, ‘달아나자.’는 말도 아니하시고, 좌우를 치도 아니하시고, 조금도 화증 내신 기색 없이 썩 용포를 달라 하여 입으시며 하시되, “㉡내가 학질을 앓는다 하려 하니, 세손의 휘향을 가져오라.” 하시거늘, 내가 그 휘향은 작으니 당시 휘향을 쓰시고자 하야, 내인(內人)더러 ㉢당신 휘향을 가져오라 하니, 몽매(夢寐) 밖에 썩 하시기를, “자네가 아무커나 무섭고 흉한 사람이로세. 자네는 세손 데리고 오래 살려 하기, 내가 오늘 나가 죽겠기 사외로워, 세손의 휘향을 아니 쓰이라 하는 심술을 알겠네.” 하시니, ㉣내 마음은 당신이 그날 그 지경에 이르실 줄 모르고 이 끝이 어찌 될꼬? 사람이 다 죽을 일이요, 우리의 모자의 목숨이 어떠할런고?

- 혜경궁 홍씨, 「한중록」 -

- ① ㉠ ② ㉡
③ ㉢ ④ ㉣

★ 정답: ④ - 독해 - 문학 - 고전 산문의 내용 이해

제시된 글은 영조가 사도 세자를 부르라는 전갈을 받은 후 사도 세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의 ‘내’는 필자인 혜경궁 홍씨를 가리키고, 나머지 선지는 모두 소조(小朝), 즉 사도 세자를 가리킨다.

참고) 혜경궁 홍씨, 궁중 수필 <한중록>(우일환 독해 p. 273)

★ 오답 해설:

- ① ㉠의 소조(小朝)는 사도 세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② ‘피(避)차’는 말도, ‘달아나자’는 말도 아니하시고, 조금도 화중 내신 기색 없이 용포를 달라고 하는 주체는 ‘소조’이므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의 ‘내’가 가리키는 사람은 ‘소조’이다.
 ③ ‘그 휘황은 작으니 당신 휘황을 쓰시고자 하야’는 ‘세손의 휘황은 작으니 당신 휘황을 쓰십시오’라는 의미이다. ㉡의 ‘당신’은 3인칭 대명사로 소조, 즉 사도 세자를 높여서 부른 극존칭이다.

2017 지방직 7급

문 7. 다음 글에 나타난 화자의 상황 및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하루도 열두 때 한 달도 서른 날. 저근덧 생각마라. 이 시름 잊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에 끼쳤으니 편작이 열이오나 이 병을 어찌하리. 어와 내 병이야 이 임의 탓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 되오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 데 족족 앓아 있다가 향 문은 날개로 임의 옷에 앉으리라. 임이야 날인 줄 모르서도 내 임 좇으려 하노라.

- ① 서방님 병(病) 들어 두고 쓸 것 없어
 종루 저자에 다리 팔아 배 사고 감 사고 유자 사고 석류 샀다.
 아차차 잊었구나. 오화당(五花糖)을 잊어 버렸구나.
 수박에 손 꽃아 놓고 한숨계워 하노라.
 ② 갓나희들이 여러 층(層)이오매
 송골매도 같고 줄에 앉은 제비도 같고 백화원리(百花園裡)에 두루미도 같고 녹수파란(綠水波瀾)에 비오리도 같고 따헤 펴 앉은 소리개도 같고 썩은 등걸에 부엉이도 같데.
 그러도 다 각각 임의 사랑이니 개(皆) 일색(一色)인가 하노라.
 ③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꼬.
 단표누향에 허튼 혜음 아니하니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④ 내 임을 그리워하여 울고 있나니
 산 접동새 난 비슷하오이다.
 아니시며 거즈르신 것을
 아으 잔월효성이 알으시리이다.

★ 정답: ④ - 독해 - 문학 - 고전 운문의 내용 이해

제시된 글은 정철의 유배가사인 <사미인곡>의 결사이다. 작자는 유배지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임’과 이별하여 마음에 병이 생긴 여성 화자로 표현하였다. ‘임(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절대적 사랑을 담은 시가이다. ④는 고려 의종 때 정서가 지은 향가계요 <정과정>이다. 여성 화자를 통해 이별을 상황과 정서를 담아 ‘유배의 한’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가장 유사하다. [지문에 제시된 <사미인곡> 결사의 현대어 풀이]

하루도 열두 때, 한 달도 서른 날, 잠시라도 임 생각을 말아 이 시름을 잊으려 하여도 마음속에 맺혀 있어 뻗속까지 사무쳤으니, 편작과 같은 명의가 열 명이 오더라도 이 병을 어떻게 하랴. 아, 내 병이야 이 임(임금)의 탓이로다. 차라리 사라져 범나비가 되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 데 족족 앓았다가 향기 문은 날개로 임의 옷에 움으리라. 임께서 나인 줄 모르서도 나는 임을 따르려 하노라.

[선지 ④에 제시된 ‘정과정’의 현대어 풀이]

내 임을 그리워하며 울며 지내더니
 산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아니시며 거짓인 줄
 천지신명이 아실 것입니다.

참고) 정철, 가사 <사미인곡>(우월한 독해 p. 232),

정서, 향가계 여요 <정과정>(우월한 독해 p. 216)

<사미인곡> 작품 해설

- 갈 래 ▶ 서정 가사, 양반 가사, 연군 가사, 유배 가사
 의 의 ▶ 가사 문학의 절정, 고려 속요(정과정)의 맥을 이음.
 특 징 ▶ ① 연군지정을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표현
 ②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정서의 흐름을 적절히 표현
 ③ 비유적 표현과 소재의 상징성
 주 제 ▶ 연군의 정, 이별의 정한
 작 가 ▶ 정철(鄭澈, 1536-1593). 조선 선조 때의 문신. 호는 송강(松江)

<정과정> 작품 해설

- 갈 래 ▶ 충신연주지사, 유배시
 의 의 ▶ 향가계 여요, 향가가 고려 속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기적 형태
 특 징 ▶ ① 비유법, 영단법 등을 사용
 ② 분연이 안 되고, 후렴구가 없음.
 ③ 향가의 전통(3단 구성, 감탄사 ‘아소 님하’)이 남아 있음.
 ④ 고려는 물론 조선 시대까지 궁중 음악으로 불림.
 주 제 ▶ 임금을 그리는 정, 참소와 유배

★ 오답 해설:

- ① 남편을 위하는 아내의 마음을 담은 김수장의 사설시조이다.
 [현대어풀이] 서방님 병들어 돈될 만한 것이 없어서 / 종루 시장에 머리카락을 팔아 배 사고 감 사고 유자 사고 석류 샀다. / 아차 아차 잊었구나 오화당(花糖, 다섯 가지 색깔의 동글납작한 중국사탕)을 잊었구나 / 수박에 손가락 꽃아놓고 한숨을 짓고 있다.
 ② 제각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에 대한 김수장의 사설시조이다.
 [현대어풀이] 계집들도 여러 층이더라. / 송골매도 같기도 하고 줄에 앉은 제비 같기도 하고 백화원리에 두루미도 같기도 하고 녹수파란에 비오리 같기도 하고 땅에 펴 앉은 솔개 같기도 하고 썩은 등걸에 부엉이도 같기도 하다. / 그러도 다 각자가 님의 사랑이니 개개인 다 뛰어난 미인인가 하노라.
 ③ 자연친화와 안분지족의 정신을 담은 최초의 가사 정극인의 <상춘곡>이다.
 [현대어풀이]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을까? / 소박히 살면서도 헛된 생각 아니하네. /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하면 만족하리.

2017 지방직 7급

문 8. ㉠, ㉡에 들어갈 한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富與貴, 是人之所以欲也, 不(㉠)其道得之, 不處也
 ○ 樹欲靜(㉡)風不止

- | | |
|-----|---|
| ㉠ | ㉡ |
| ① 而 | 以 |
| ② 以 | 而 |
| ③ 而 | 而 |
| ④ 以 | 以 |

★ 정답: ② - 한문

○ 富與貴, 是人之所以欲也, 不(㉠以)其道得之, 不處也 - <논어 4-5>

부여귀, 시인지소욕야, 불(㉠이)기도득지, 불처야

: 부유함과 고귀함 이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합당한 방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거기에 연연하여 머물지 말아야 한다.

○ 樹欲靜(㉠)風不止 - <한시외전(韓詩外傳)> 9권
수옥정(㉡)풍부지

: 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멎지 않으니 뜻대로 되지 않는다.

참고) 문법적 의미를 가진 한자(접속어, 조사, 어미, 부사)(저절로 어휘·한자 p. 339)

㉠ 이(이)

- ① 도구, 재료: ‘~로(써), ~을 가지고’의 뜻
- ② 원인: ‘~로 인하여, ~때문에’의 뜻
- ③ 신분, 자격: ‘~로서, ~의 자격으로’의 뜻

㉡ 而(이)

- ① 순접 및 병렬 관계: 그리고, ~고(며)
- ② 역접: ‘~하나, ~이라도, ~이지만’의 뜻(but)

2017 지방직 7급

문 9. 다음 글의 고쳐 쓰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클래식 입문’ - 두려워하지 마세요.

클래식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클래식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티켓트를 구한 후 별도의 준비 없이도 공연 현장에서 곧바로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클래식이다.

물론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습’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연장에 가기 전에 감상할 음악의 전곡(全曲) 음반을 구해 ㉢미리 들어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작곡가나 연주자 그리고 지휘자 등에 대해 미리 살펴보는 것도 좋다. 같은 곡을 다른 사람이 연주한 것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공연장에서 연주가 끝날 때에는 뜨거운 갈채를 보낸다. 연주가 만족스럽게 느껴졌을 때도 박수를 칠 수 있다. 매우 감동한 경우에는 ‘앙코르!’, ‘브라보!’ 등의 환호를 보내도 ㉣올바르다.

- ① ㉠: 제목을 ‘클래식 예절 - 꼭 지켜야 할 것들’로 바꾸자.
- ② ㉡: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티켓트’를 ‘티켓’으로 고치자.
- ③ ㉢: 서술어를 ‘미리 들어 보는 것이다.’로 고쳐야겠어.
- ④ ㉣: ‘올바르다’는 ‘무방하다’로 바꾸는 것이 좋겠어.

☆ 정답: ① - 독해 - 작문 - 고쳐 쓰기

‘클래식 예절-꼭 지켜야 할 것들’로 제목을 바꿀 경우 글의 내용은 클래식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제시된 글은 클래식을 별도의 준비 없이도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글의 제목을 ‘클래식 입문-두려워하지 마세요’로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해설:

- ②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는 외래어 표기법 규정에 따라 ‘ticket’은 ‘티켓’이라 적는다.
- ③ 주어 ‘가장 좋은 방법’에 해당하는 서술어 ‘들어볼 수 있어야 한다’가 의미상 호응하지 않는다. 주어 ‘방법’은 ‘~것이다, ~점이다’와 같은 서술어와 호응해야 하므로 서술어를 ‘미리 들어보는 것이다’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 ④ 문맥상 ‘행동 따위가 이치나 규범에서 벗어남이 없이 옳고 바르다’는 의미의 ‘올바르다’보다는 ‘~어도’ 끝에 후행하여 ‘거리낄 것이 없이 괜찮다.’는 의미의 ‘무방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2017 지방직 7급

문 1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빠, 편히 사시오.”

계연은 이미 시뻘정계 된 두 눈으로 성기의 마지막 시선을 찾으려 하직 인사를 했다. 성기는 계연의 이 말에, 꿈을 갠 듯, 마루에서 벌떡 일어나, 계연의 앞으로 당황히 몇 걸음 어둑어둑 걸어오다간, 돌연히 다시 정신이 나는 듯 그 자리에 화석처럼 발이 굳어 버린 채, 한참 동안 장승같이 계연의 얼굴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오빠, 편히 사시오.”

이렇게 두 번째 하직을 하는 순간까지도, 계연의 그 시뻘진 두 눈은 역시 성기의 얼굴에서 그 어떤 기적과도 같은 구원만을 기다리는 것이었고, 그러나 성기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릴 뻔하던 것을 겨우 버드나무 가지들 움켜잡을 수 있었을 뿐이었다.

계연의 시뻘정계 상기된 얼굴은, 옥화와 그녀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대인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향라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빠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 김동리, 「역마」 -

- ① 계연이 하직 인사를 세 번 한 것은 성기와 계연의 인연을 끝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을 의미한다.
- ② 성기의 말없음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성기의 심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③ 계연이가 마을을 떠나는 장면의 자연적 배경은 굴곡이 심한 계연의 미래를 암시한다.
- ④ 성기의 성격과 태도에 대한 작가의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서술이 있다.

☆ 정답: ② - 독해 - 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제시된 글은 김동리의 소설 <역마>이다. 서로 사랑하는 성기와 계연이 영문도 모르고 원치 않는 이별을 하는 장면이다. 성기는 그녀와의 이별에 매우 당황하여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그녀를 보낸다. 성기는 옥화(어머니)와 계연의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복잡한 심정으로 말이 없는 것이다.

참고) 김동리, <역마>(우월한 독해 p. 345)

<역마> 작품 해설

배 경 ▶ 전라도, 경상도의 접경 지역인 화계 장터

성 격 ▶ 시대적 현실과는 거리를 둔 순수 소설, 운명과 개인의 갈등, 한국적 운명론

줄거리 ▶ 주인공 성기는 역마살을 타고났다. 어머니 옥화는 열 살 때부터 그를 절에 보내 길렀다. 어느 날 체장수 영감이 딸 계연을 데리고 나타나고, 성기가 그녀를 좋아하는 눈치를 보이자 옥화는 둘을 짝지어 주고자 한다. 그러나 계연의 컷바퀴에서 자기와 똑같은 사마귀를 발견하고, 아버지가 다른 자신의 동생임을 확인한다. 결국 영문도 모른 채 성기와 계연은 이별하게 되고, 이 일로 성기는 자리에 눕는다. 이후 옥화의 이야기를 들은 성기는 역마살의 운명에 순응하며 길을 떠난다.

주 제 ▶ 운명에 순응함으로써 구원됨. 한국적 운명관(역마살)에의 순종과 그에 따른 인간성의 구현

★ 오답 해설:

- ① 계원이 성기의 얼굴에서 '그 어떤 기적과도 같은 구원만을 기다리는 것'은 헤어지기 싫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성기와 인연을 끝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없다.
- ③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뽕꾸기 울음'으로 표현된 자연적 배경은 아름답기에 주인공의 슬픔을 더욱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 계원의 미래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슬픈 현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 ④ 서술자는 제시된 부분에서 인물의 행위와 대사, 그리고 배경을 묘사할 뿐,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드러낸 적이 없다.

2017 지방직 7급

문 11. 밑줄 친 관용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저 친구는 입이 높아 일반 음식은 먹지 않아.
 ② 그는 입이 뜨고 과묵한 사람이다.
 ③ 입 아래 코라고 일의 순서가 바뀌었어.
 ④ 사람이 저렇게 입이 진 것을 보니 교양이 있겠구나.

★ 정답: ④ - 관용어

입이 질다:

「1」속된 말씨로 거리낌 없이 말을 함부로 하다.

『예전부터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신언서판이란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입이 진 걸 보니 교양 있는 사람은 아니구먼.

「2」말을 수다스럽게 많이 하는 버릇이 있다.

『사람이 저렇게 입이 질어서야 어디 신임을 얻을 수 있겠나.

참고) 신체 관련 관용어(저절로 어휘·한자 p. 195)

★ 오답 해설:

- ① 입이 높다: 보통 음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맛있고 좋은 음식만을 바라는 버릇이 있다.
- ② 입이 뜨다: 입이 무겁거나 하여 말수가 적다.
- ③ 입 아래 코: 일의 순서가 바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17 지방직 7급

문 12. 밑줄 친 시어 중 내포적 의미가 유사하지 않은 것끼리 묶은 것은?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흥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고고
 모두 위에서 버리고
 솥들에 갈아
 시퍼런 무쇠땀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 ① 플라스틱 물건, 똥덩이
 ② 찾아가고 싶다, 바꾸고 싶다
 ③ 틸보네 대장간, 직지사 해우소
 ④ 무쇠땀, 꼬부랑 호미

★ 정답: ③ - 독해 - 문학 - 현대 운문의 내용 이해

제시된 시는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이다. 현대 산업 사회에서 대량 생산되는 '플라스틱 물건' 같은 존재로 전락한 현대인이 자신을 '직지사 해우소'의 '똥덩이'라 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치 있는 존재로 되돌아가고 싶은 소망을 '꼬부랑 호미'와 '무쇠땀'이 되고 싶다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틸보네 대장간'은 가치 있는 존재로 돌아가기 위한 긍정적인 장소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직지사 해우소'는 현대 산업 사회를 이르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대장간의 유혹> 작품 해설

주 제 ▶ 무가치한 존재로 살아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가치 있는 존재 회복에 대한 소망과 의지

구 성 ▶ • 1~6행: 물개성적인 현대인의 삶에 대한 회의
 • 7~9행: 사라진 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은 소망
 • 10~18행: 가치 있고 진정한 삶에 대한 열망
 • 19~25행: 무가치한 삶에 대한 성찰과 참된 삶의 추구

2017 지방직 7급

문 13. 다음 글의 진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언어도 인간처럼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다. 언어가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사멸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다. ... (중략) ... 하와이어도 사멸 위기를 겪었다. 하와이어의 포식 언어는 영어였다. 1778년 당시 80만 명에 달했던 하와이 원주민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감기, 홍역 등의 질병과 정치 문화적 박해로 1900년에는 4만 명까지 감소했다. 당연히 하와이어 사용자도 급감했다. 1898년에 하와이가 미국에 합병되면서부터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하와이어의 위상은 영어 공용어 교육 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크게 위축되었다. 1978년부터 몰입식 공교육을 통한 하와이어 복원이 시도되고 있으나, 하와이어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원주민 수는 현재 1,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 (중략) ...

언어의 사멸은 급속하게 진행된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평균 2주에 1개 정도의 언어가 사멸하고 있다. 우비크, 쿠페노, 맵크스, 쿤월, 음바바람, 메로에, 컴브리아어 등이 사라진 언어이다. 이러한 상태라면 금세기 말까지 지구에 존재하는 언어 가운데 90%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추산도 가능하다.

- ①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언어 사멸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② 예상되는 반론을 제기하고, 언어가 사멸된다고 주장하였다.
 ③ 구체적인 예를 활용하여, 언어 사멸의 위기를 증명하였다.
 ④ 언어를 생명체에 비유하고, 수많은 언어가 사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정답: ㉔ - 독해 - 비문학 - 논지 전개 방식

제시된 글은 '하와이어'를 예로 들어 '언어의 사멸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필자의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제기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오답 해설:

- ① '하와이어'를 구사하는 사람의 수와, 미래에 사라질 언어의 비중을 통계 수치로 제시하며 언어 사멸 현상을 설명하였다.
 ③ '하와이어'라는 구체적인 예를 활용하여, 언어 사멸의 위기를 증명하였다.
 ④ 생명체인 인간과 마찬가지로 언어도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다고 말하며 사멸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017 지방직 7급

문 14. 전화를 걸 때의 표준 언어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화를 거는 사람은 인사를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이 어린 사람의 경우 어른이 전화를 받았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친구)의 친구 ○○(이름)입니다.'처럼 통화하고 싶은 사람과 어떤 관계인가를 밝히는 것이 예(禮)이다.
 ②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을 때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하고 인사하고 끊는다. ' 들어가세요.'라는 말도 많이 쓰이는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이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전화를 끊어야 할 때도 자신을 밝히고 끊어야 하며, 어른보다 먼저 전화를 끊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다.
 ③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 '죄송합니다만, ○○(이름)한테서 전화 왔다고 전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라는 말을 쓴다. 이 상황에서도 '전해 주시겠습니까?'를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등으로 적절히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 '죄송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 또는 '미안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라고 예의를 갖추어 정중히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 표현이다.

★ 정답: ㉔ - 높임법과 언어 예절 - 전화 예절

"들어가세요"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명령형 표현이고 일부 지역에서만 쓰는 말이므로 가능한 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 오답 해설:

- ① 전화를 걸 때 거는 사람은 자기를 밝히고 인사한 뒤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기본적인 전화 예절이다. 특히 나이 어린 사람이 걸고 어른이 받았을 때에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 친구 ○○입니다. ○○ 있습니까?"와 같이 말하는 것이 전화 예절에 맞는 표현이다.
 ③ "전해 주시겠습니까?"를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등으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전화 예절에 어긋나지 않으나, "전해 주십시오"와 같은 명령형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④ 전화를 잘못 걸었을 때에는 "죄송합니다(미안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라고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말해야 한다. 또한 전화가 잘못 걸려왔을 때에도 "아니네요(아닙니다).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 "잘못 거셨습니다."라는 표현 역시 전화도 제대로 못 거느냐는 시비조의 어감이 들 수 있으므로 지양한다.

2017 지방직 7급

문 15. 밑줄 친 단어의 한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 많은 고통을 ㉑감수한 결과 오늘의 결과를 이루었다.
 ○ 우리 사회에 ㉒만연해 있는 불신감을 해소해야 한다.

- | | |
|------|----|
| ㉑ | ㉒ |
| ① 甘授 | 漫延 |
| ② 甘受 | 漫延 |
| ③ 甘授 | 蔓延 |
| ④ 甘受 | 蔓延 |

★ 정답: ㉔ - 어휘 - 한자

㉑ 甘受(달 감, 받을 수): 군말 없이 달게 받음

참고) 授(줄 수)

㉒ 蔓延(덩굴 만, 늘일 연): 널리 번지어 퍼짐 즉 蔓衍(덩굴 만, 넓을 연)

참고) 漫然(홀어질 만, 그럴 연): '만연하다'의 어근

만연-하다⁰¹ 「형용사」

「1」 어떤 목적이 없이 되는데로 하는 태도가 있다.

「2」 맺힌 데가 없다.

「3」 길고 멀어 막연하다.

2017 지방직 7급

문 16.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장은?

'천재'라는 말은 18세기에 갑자기 영예로운 칭호가 되었다. 천재는 예술의 창조자이며, 예술의 창조는 과학처럼 원리나 법칙에 의거하지 않는다. ㉑ 과학은 인간의 이성과 감성 사이에 분열을 가져왔다. ㉒ 예술에는 전래의 비방이 있을 수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전수될 수 없다. ㉓ 예술가 스스로도 자신이 완성한 작품의 진정한 비밀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한다. ㉔ 마침내, 사람들은 천재라는 개념으로 예술 창조의 비밀을 표현하였다.

- | | |
|-----|-----|
| ① ㉑ | ② ㉒ |
| ③ ㉓ | ④ ㉔ |

★ 정답: ㉑ - 독해 - 비문학 - 주제 - 통일성에 어긋난 문장

제시된 글은 '천재'라는 말의 영예로움이 과학의 원리나 법칙에 의거하지 않는 예술의 특수성에서 기인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㉑은 과학이 인간에게 야기한 결과를 언급하고 있어 글의 주제와 맞지 않아 통일성에 어긋난다.

★ 오답 해설:

- ② ㉒은 '예술은 비방이 있을 수 없으며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전수될 수 없다'라고 하여, 과학과 구분되는 예술의 특수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글의 통일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③ ㉓은 '예술가 스스로도 자신이 만든 작품의 진정한 비밀을 모른다'라고 하여 과학과 구분되는 예술의 특수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글의 통일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④ ㉔은 '천재'라는 용어에 영예로움이 생긴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글의 통일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2017 지방직 7급

문 17. 춘향과 신관 사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관이 분부하되 “네 본을 기생으로 도입 초에 현신 아니 하기를 잘 했느냐?”
 춘향이 아뢰되 “소녀 구관 사또 자제 도련님 뵈신 후에 대비정숙한 고로 대령치 아니하였나이다.”
 신관이 증을 내어 분부하되 “고이하다. 너 같은 노류 장화가 수절이란 말이 고이하다. 내가 수절하면 우리 마누라는 기절할까? 요망한 말 말고 오늘부터 수절 거행하라.”
 춘향이 여쭙되 “만 번 죽사와도 이는 봉행치 못 할 소이다.” 신관의 말이 “네 잡말 말고 분부대로 거행하여라.”
 춘향이 여쭙되 “고언에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열녀는 불경이부라 하오니 사또께서는 응당 아실지라. 만일 국운이 불행하여 난시를 당하오면 사또께서는 도적에게 굴욕하시리이까?” 신관이 이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며 강변의 덴 소 날뛰듯하며 춘향을 바빠 형추하라 하니

- ① 신관 사또는 춘향에게 회유의 말과 겁박의 말을 번갈아 사용했다.
- ② 신관 사또는 춘향의 정서적 거부감을 없애려고 회화적 표현을 사용했다.
- ③ 춘향은 양시론적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화법을 구사했다.
- ④ 춘향은 자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신관 사또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화법을 구사했다.

★ 정답: ④ - 독해 - 문학 - 고전 산문의 서술 전개 방식

춘향은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열녀는 불경이부’라는 고언을 활용하여 수절을 거부하는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와 동시에 신관 사또의 부당성을 부각하고 있다.

참고) 작가 미상,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우월한 독해 p. 261)

★ 오답 해설:

- ① 신관 사또가 춘향에게 “요망한 말 말고 오늘부터 수절 거행하라”, “네 잡말 말고 분부대로 거행하여라”와 같이 겁박의 말을 할 뿐, 회유의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 ② 신관 사또가 춘향의 정서적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회화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양시론’이란 뜻서서 내세우는 두 말이 모두 옳다는 주장이나 이론인데 춘향은 신관 사또의 말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양시론이란 말은 적절하지 않다.

2017 지방직 7급

문 1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루는 나는 “평생소원이 무엇이냐?”고 그에게 물어 보았다. 그는 “그까짓 것쯤 얼른 대답하기는 누워서 떡먹기.”라고 하면서 “평생소원은 자기도 원 배달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남이 혼자 배달하기 힘들어서 한 20부 떼어 주는 것을 배달하고, 월급이라고 원 배달에게서 한 3원 받는 터이라 월급을 20여 원을 받고, 신문사 옷을 입고, 방울을 차고 다니는 원 배달이 제일 부럽노라 하였다. ... (중략) ...

그러나 웬일일까, 정말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문을 들고 들어서는 사람은 황수건이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다.

“왜 전옛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요?”

물으니 그는

“제가 성복동을 맡았습니다.”

한다.

“그럼 전옛 사람은 어디를 맡았소?”

하니 그는 픽 웃으며,

“그까짓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배달부로 쓸러다가 푹푹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말었나 봅니다.”

한다. ... (중략) ...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어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읍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세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먹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것을 직감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 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 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 이태준, 「달밤」 -

- ① 현실에 쉽게 좌절하는 무기력한 인물을 조롱하고 있다.
- ② 서술의 초점을 사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드러내는 데 맞추고 있다.
- ③ 순박하고 따뜻한 심성을 지닌 인물에 대한 화자의 포용적 태도를 느낄 수 있다.
- ④ 개인의 삶을 짓밟는 현실의 부조리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정답: ③ - 독해 - 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2016년 서울시 9급 기출 유사 출제)

제시된 글은 이태준의 소설 <달밤>이다. 화자는 남들이 ‘반편이’로 여기는 ‘황수건’이 자신을 위해 포도를 훔쳤다가 봉변을 당하자, 포도값을 물어주고 그 포도를 ‘은근한 순정의 열매’라며 아껴 먹는다. 우둔하지만 순박한 품성을 지닌 ‘황수건’에 대한 화자의 포용적 태도를 알 수 있다.

<달밤> 작품 해설

갈 래 ▶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시 점 ▶ 1인칭 관찰자 시점

배 경 ▶ 1930년대(일제 강점기) 서울 성복동

주 제 ▶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한 못난이의 삶에 대한 연민

특 징 ▶ ① 작가 이태준의 서정성과 인정미가 잘 드러남.

② 세밀한 묘사를 통해 사건과 인물을 선명하게 드러냄.

③ 아이러니 기법을 통해 사건을 비극적으로 구성하여 비장미를 창출함.

2017 지방직 7급

문 19. ㉠과 ㉡이 비슷한 의미의 사자성어가 아닌 것은?

- | | |
|--------|------|
| ㉠ | ㉡ |
| ① 單刀直入 | 去頭截尾 |
| ② 如出一口 | 異口同聲 |
| ③ 屍山血海 | 滄海一粟 |
| ④ 面從腹背 | 口蜜腹劍 |

★ 정답: ③ - 어휘 - 한자성어

㉠ 屍山血海(시산혈해): 사람의 시체가 산같이 쌓이고 피가 바다같이 흐름을 이르는 말. 「참고 어휘」 目不忍見(목불인견)

㉡ 滄海一粟(창해일속): 아주 많거나 넓은 것 가운데 있는 매우 하찮고 작은 것을 이르는 말. 「참고 어휘」 九牛一毛(구우일모)

★ 오답 해설:

① ㉠ 單刀直入(단도직입): 여러 말을 늘어놓지 아니하고 바로 요점이나 본문제를 중심적으로 말함.

㉡ 去頭截尾(거두절미): 어떤 일의 요점만 간단히 말함.

② ㉠ 如出一口(여출일구): 한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 사람의 말이 같음을 이르는 말.

㉡ 異口同聲(이구동성):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을 이르는 말. ≡ 異口同音(이구동음)

④ ㉠ 面從腹背(면종복배):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 ≡ 陽奉陰違(양봉음위)

㉡ 口蜜腹劍(구밀복검):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

2017 지방직 7급

문 20. 다음 글을 뒷받침 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즘 젊은 것들은...” 하는 나무람을 들어 보지 않은 젊은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 나무람에서 어르신 세대의 불편한 심기를 읽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말이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인데, 그 변화에 대한 감각이 세대에 따라 크게 다르다. 어르신 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젊은 세대의 존대법이다. 어르신 세대가 보기에, 젊은 세대의 존대법은 혼란스럽게 짝이 없어 불쾌하기까지 한 것이다.

- ① “요즘 애들은 어른을 만나서 말을 할 때도 ‘저’라고 하지 않고 ‘나’라고 하더군.”
- ②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서 ‘제가 한 말씀은요.’라고 하는데 아주 깜짝 놀랐어.”
- ③ “친구 아들이 날 ‘과장님’이라 부르더군. 직함이 과장이라고 그렇게 부르더군.”
- ④ “어른한테 ‘수고하세요.’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 대체 알 수가 없어.”

★ 정답: ③ - 높임법과 언어 예절 - 존대법

아버지의 친구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은 일반적으로 ‘아저씨’, ‘○○[지역] 아저씨’이나 어릴 때는 물론 성인인 되어서도 친근하게 ‘○○[아버지 친구의 자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성인이 되면 예를 갖추어 ‘어르신’,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나 가리킬 수도 있다. 또 아버지 친구의 직함을 빌려 ‘과장

님’, ‘○ 과장님’으로 부르거나 가리킬 수 있다. (《표준 언어 예절》, 국립국어원, 2011)

★ 오답 해설:

① ‘저’는 말하는 이가 윗사람이나 그다지 가깝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이다. 말하는 이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랫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인 ‘나’를 윗사람에게 쓰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②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기도 하므로 선생님께 자기가 한 말을 ‘말씀’이라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제가 한 말씀은요’보다는 ‘제가 드린 말씀은요’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존대법에 맞는 표현이다.

④ ‘수고하세요’라는 표현이 윗사람에게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수고하세요’를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표준 화법 해설》, 국립국어원, 1992)

[2018 이유진 강의와 교재들 - 전체 커리큘럼 소개]



★ 기초 입문

교과서에 충실한, 테스트 수록 기본서!
알기쉬운 문법(32장) - 이론+테스트북
우월한 독해(20장)
- 비문학 기술+교과서 필수 문학작품
저렴한 어휘한자(16장) - 연상기억 유도 테스트북



★ 영역 심화

문제를이 전 실용국어 단권화
+ 독해 유형별 훈련
실용국어 이론 > 마인드맵+도식화
빈칸/TOX테스트
교과서 학습 활동 문제
영역까지 점수가 오르는 독해 20패턴 유형 훈련



★ 기술 문풀

빈출코드 160
- 핵심 문항(320제) 수업+직접 작성하는 과제 (160제)
- 기술 해설을 직접 작성해 보는 프로젝트
기술300제
- 영역별 대표유형만 이론+출제원리+유형해법



★ 예상 테마

다치고 고독점
- 어떤 문제 출했다! - 단원별 오답률 상위 유형
- 어떻게 나온다! - 단원별 고난도 향응어 예상 문제

★ 동형 모고 + 마무리

동형모고
- 일타이피 레벌업 모고
- 다치고 고독점 2+1 모고
마무리
- 출제포인트 99 / 국립국어원 필기 특강
- N수출 위한 올인원 국어 특강
- 영역별 무료 특강까지!!

변화하는 공식국어의 답!
이유진의 교재!